

제안명	지하철 기관사님들의 운행중 우울, 불안감 개선
검토의견	<p>안녕하세요? 서울시철도공사 승무지원처 정용식입니다.</p> <p>먼저,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기관사들을 생각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공사 고객센터(1577-5678)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문자, 전화 등으로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. 그 중에 기관사들에 대한 칭찬 의견도 있으며, 이 의견들은 사내 전산망으로 해당 기관사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지음(知音) 이란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. [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이르는 말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좋은 말이에요, 앞으로 기관사들에 대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. 지금도, 내일도 어두운 터널에서 홀로 일하고 있을 기관사들이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.